

광주 남구청 남자 양궁단 창단

이현창 감독 지휘봉... 국가대표 이승윤 등 선수단 5명으로 구성 광주양궁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속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

광주 남구청 남자 양궁단이 공식 창단했다. 남구청은 17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열정을 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구청 남자 양궁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식에는 양궁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병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창단추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선수단은 이현창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양궁 국

가대표 이승윤을 비롯해 김승은, 임지완, 이진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남자 양궁 세계랭킹 1위인 이승윤은 오는 22일부터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2021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에 출전, 리우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도전을 이어간다. 남구청 남자양궁단 창단으로 광주 양궁은 초, 중, 고, 대학(조선대·광주여대), 실업팀(광주시청·남구청)으로 이어지는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도 양궁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양궁도시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병내 단장은 "남구청 양궁 창단은 대한민국 양궁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양궁 종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남자 양궁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청 남자 양궁단 출범에 따른 양궁도시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한 밀그림도 제시했다. 김 단장은 "남구청 남자 양궁단이 신설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광주 국제양궁장을 활용해 광주 아시안컵 2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청은 17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남자 양궁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병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창단을 기념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에 김선광 부회장

김선광(63·사진) 전 광주시레슬링 협회장이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광주시체육회는 17일 "김창준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회장이 사전 지명된 김선광 직무대행 체제로 체육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 규약 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귀위시 직무대행)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창준 회장은 현 체육회 부회장인 김선광 전 광주시레슬링협회장을 사전 지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옛 보성농업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제품포장 업체인 대성포장 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레슬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두루 인정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선광 직무대행은 "중차대한 시기에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안인 체육회장 보궐선거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인준을 거쳐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FC 세르비아 국가대표 수비수 알렉스 영입

자가격리 마치고 팀 훈련 합류

프로축구 광주FC가 세르비아 국가대표 알렉스(28·사진)로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17일 "세르비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알렉스를 영입해 수비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188cm·75kg의 체격을 지닌 알렉스는 수비 시위 선정과 안정적인 볼 처리, 스피드가 강점이며, 정확한 킥과 빌드업으로 공수 전반에 다양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렉스는 2009년 세르비아의 OFK 플라데노바크에서 데뷔했으며 FK 프리브람(체코 1부) 등에서 프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6년 노비 사드에 입단한 알렉스는 2017/2018시즌 팀 우승과 함께 1부리그 승격에 기여하는 등 5시즌간 맹활약을 펼쳤다. 소속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한 알렉스는 지난 1월 생애 첫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파나마와의 친선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거친 알렉스는 팀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알렉스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웨이트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컨디션 유지에 노력했다"며 "광주의 경기를 보면서 투쟁심과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빨리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맨시티·레알 마드리드 챔스리그 8강행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잉글랜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진출했다. 맨시티는 17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UCL 16강 2차전에서 전반에만 케빈 디브라위너와 일카이 쿨도안인 연속 골을 터뜨려 보루시아 뮌헨과 라트비아(독일)를 2-0으로 물리쳤다. 지난달 25일 1차전에서도 2-0으로 승리했던 맨시티는 두 경기 합계 4-0으로 완승, 8강에 올랐다. 이로써 맨시티는 2017-2018시즌부터 4년 연속 UCL 8강 진입에 성공했다. 맨시티는 경기 시작 12분 만에 디브라위너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리야드 마흐레즈의 패스를 받아 때린 강한 원발 슈트가 그대로 꽂히며 기선을

제압했다. 6분 뒤엔 필 포든이 빠르게 쇄도하며 찰리 존 공을 쿨도안인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로 마무리, 합계 4골 차로 리드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후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한 맨시티는 16강 전 2경기를 포함해 챔피언스리그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 역대 최대 연속 '클린 시트' 경기 부문 2위에 올랐다. 아스널(잉글랜드)이 2005~2006년 남긴 10경기가 역대 1위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경기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이탈리아)를 3-1로 꺾고 16강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8강에 진입했다. 2015-2016시즌부터 UCL 3연패를 달성했으나 이후 2년 연속 16강에서 탈락했던 레알 마드리드

는 우승했던 2017-2018시즌 이후 3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전반 34분 카림 벤제마의 선제골에 힘입어 레알 마드리드는 합계 점수에서 두 골 차로 벌려 8강행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후반 15분엔 페널티킥으로 한 골이 더 나왔다. 아탈란타는 후반 38분 루이스 무리엘이 한 골을 만회했으나 2분 뒤 마르코 아센시오가 레알 마드리드의 완승에 췌기를 막았다. 이날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합류하며 이번 시즌 UCL 8강 중 6개 팀이 가려졌다. 앞서 리버풀(잉글랜드), 도르트문트(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포르투(포르투갈)가 8강행을 확정짓는 바 있다. 남은 두 자리는 18일 라치오(이탈리아)-바이에른 뮌헨(독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첼시(잉글랜드)의 경기로 결정된다. 8강전은 다음 달 열리며, 대진은 20일 추첨으로 결정된다.

/연합뉴스

이재성, 분데스리가 1부서 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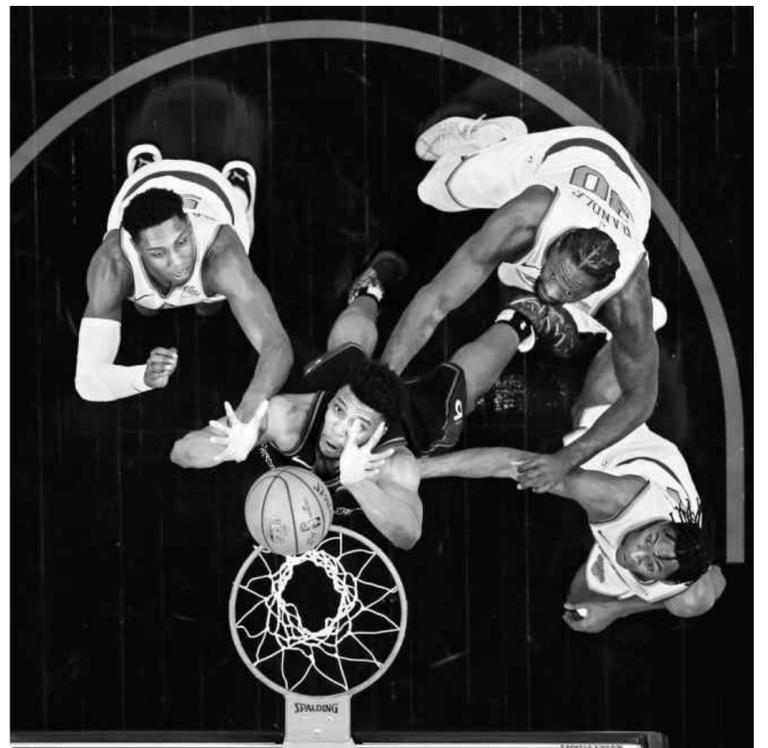
독일 언론 "호펜하임 이적 앞뒀"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출신인 킬의 에이스로 활약해 온 이재성(29)이 1부 분데스리가가 호펜하임 유니폼을 입을 거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독일 스포츠포츠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성이 여름 호펜하임으로의 이적을 앞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지만, 모든 당사자가 곧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점에 낙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K리그 전북 현대의 간판 미드필더로 뛰다 2018년 7월 3년 계약으로 킬에 입단, 유럽 무대로 진출한 이재성은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 활약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24경기 중 22경기에 선발 출전해 5골 2도움을 작성하고,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선 4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서 2골

을 터뜨리며 팀의 준결승 진출에 힘을 보태는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6월 계약이 끝나는 그는 독일 안팎 여러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1부 분데스리가의 베르더 브레멘, 호펜하임, 같은 2부리그에서 선두를 다투는 함부르크 등이 주로 거론돼오다 이번엔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어 소식에 전해졌다. 킬은 이번 시즌 2부 분데스리가에서 승점 46(골 득실 +16)을 쌓아 3위를 달리며 승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승격하면 다음 시즌 1부의 경쟁한 팀과 경쟁해야 하고, 잔류하더라도 다시 승격에 도전해야 하는 길로선 이재성이 떠난다면 전력 노수가 큰 만큼 재계약을 원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 상황 등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8개 팀 중 11위(승점 30)에 올라 있다. 2014~2017년 수비수 김진수(29·알 나스르)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이재성



"내공이야" 1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열린 NBA 필라델피아 76ers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리바운드 볼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모리타니안, 소울, 웨이 다운
3관	모리타니안,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웨이 다운
4관	미션 파서블
5관	미나리,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7관	정말 먼 곳, 미션 파서블
8관	그녀가 사라졌다, 통과 제리
8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작 상상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